

“9가지 맛 김치”로 전세계 입맛 사로잡아요”

전남도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산들래식품’ 백소연 대표

김치류·식혜 등 전통식품 인증경영...체험텃밭·체험장 등 갖춰
새우젓·멸치젓 등 3종류 젓갈 사용하며 맵기 조절해 맛 차별화
설립 4년차부터 연매출 4억5000만원 달성...체험교실 운영도 인기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판로개척 등 수출시장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노후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김치의 우수성을 알려 6차산업 성공 모델을 자리잡을 생각입니다.”

장성군 ‘산들래식품’ 백소연 대표가 11월 전남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

‘산들래식품’은 옐로우시티와 황룡강으로 알려진 장성 동화면에 있다. ‘산과 들이 노래하는 자연을 그대로 담다’를 뜻한 산들래는 김치류, 식혜 등 전통식품을 생산중인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체험텃밭, 체험장,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010년 어머니의 권유로 발효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부모님과 시작한 김치사업과 관련해 당시 대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도 전남에 김치브랜드만 100여 개가 넘는 등 이미 포화상태였다.

백 대표는 김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들래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에 매진했다. 김치를 소비하는 지역 특성과 개인 입맛·취향에 따라 속재료와 맵기가 다르다는 것을 착안해 고객 일대일 맞춤형 김치를 담게 됐다.

산들래 김치는 지역에 따라 서울식은 새우젓, 전라

도식은 멸치젓, 보통식은 황석어젓 등의 젓갈을 사용한다. 맵기 정도는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등 단계로 나눠 ‘9가지 맛 김치’로 차별화해 전국민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다.

김장배추로 한해 4만 포기를 사용해 일부는 직접 재배하고, 3만5000포기는 인근 농가들과 계약재배한 고품질 배추를 엄선해 쓰고 있다. 당일제조 및 당일판매 원칙을 고수하며, ‘산들래푸드맘’ 누리집(www.sandulraefood.co.kr)과 전남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이다.

백 대표의 고객 맞춤형 지원과 열정 덕분에 설립 4년차부터 연매출 4억5000만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6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뤘다.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주관한 직업체협 인증기관인 ‘꿈길 체험처’로 선정, 우리음식 쿠킹클래스 강좌를 개설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김치 담그기와 떡·식혜 만들기 등 체험활동으로 연간 1000여명이 방문해 지난해 1500만원의 연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산들래식품은 고



객 맞춤형 지원과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로 지역농업인과 동반성장중인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지역과 상생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아동 1300명에 투명우산 나눔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수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1300명에게 배오는 날 보행 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피켓을 들고 수문초등학교 일대를 행진하고, 스쿨존을 이용하는 아동 전체에게 투명우산을 나눠줬다.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운전자에게는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 의무를 알리고, 아동에게는 무단횡단 하지 않기, 좌우 살피고 건너기 등 실천 사항을 알렸다.

캠페인을 위해 bhc치킨 기업에서 광산구 관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7개를 설치했고, 스카이72 임직원들이 투명우산 1300개를 후원했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18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서비스관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박항서 감독, 경남과기대 명예 경영학 박사 됐다

베트남과 관계 증진 이바지
리더십과 전략 높이 평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8일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맞아 양국의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박 감독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지난해 베트남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제30회 동남아시아(SEA) 게임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경남과기대는 경남 출신인 박 감독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해 그의 리더십과 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이석영 경남과기대 대학원장은 “박 감독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공을 쌓았다”며 “양국 관계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⑪	00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05 한국인의 밥상(재) 55 UHD 습터	00 도도술술라라술(재)		30 고향이 보인다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용(재)
⑬	00 TV쇼 진품명품(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6			
⑮	00 마법소년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	
⑯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특목 보습설계(재) 55 닥터 365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2020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40 닥터 365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술술라라술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㉒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KBS 드라마 스페셜 2020 〈나의 가해자에게〉	40 살맛나는 세상	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문화콘서트 난장	55 접수! 무비월드 스페셜
㉔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50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추적 몬스터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 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로보카 폴리	12:25 독도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45 다큐 잇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3:00 명의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미니특급대 슈퍼공룡파워2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찬바람 불면 인도차이나반도 -다정다감 미얀마〉
08:45 워터리 뮤직박스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기행
09:00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구대장 뽕뽕이(재)	〈만추, 낭만기행 4부 편하다 가을의 맛〉
09:15 또깨비 가족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50 파란만장
09:30 물랑	16:30 당동맹 유치원(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5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형사 가제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5일 丙寅) ☎ 010-9790-8237

<p>36년생 명분은 그전만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48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다. 60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72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4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96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1, 87</p>	<p>42년생 도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54년생 헛대에 등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처리 될 것이다. 66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78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90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02년생 표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25, 82</p>
<p>37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49년생 살펴보면 열심히 드러난다. 61년생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몹시 생소 할 것이다. 73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8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자. 97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행운의 숫자 : 40, 98</p>	<p>31년생 현재의 공허함을 수용하면서 대응하다보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43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55년생 고 민해 왔던 일이 서서히 풀릴 것이다. 67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79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91년생 지극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14, 73</p>
<p>38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50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2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74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86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98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2, 86</p>	<p>32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더 할 것이다. 44년생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56년생 원칙대로 진행하라. 68년생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80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2년생 부담을 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3, 94</p>
<p>39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51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다. 63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줘야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75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 87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99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91</p>	<p>33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시세에 놓인다. 45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57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69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행태이리라. 81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93년생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97</p>
<p>40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52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겠다. 64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76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8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00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71</p>	<p>34년생 의문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46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처가 결실을 낳으리라. 58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70년생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82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94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희석되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4</p>
<p>41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53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5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77년생 파격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89년생 마주 보고 대화할 쉽게 풀 수 있다. 01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09, 51</p>	<p>35년생 투철한 의지로써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47년생 포장만 잘 해도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59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71년생 중대한 일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83년생 어떻게 하든 무리함이 없는 날이다. 95년생 재물이 기막히게 길한 날이니 잘 해라. 행운의 숫자 : 13, 66</p>